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로 (누가복음 5:1-11)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누구나 텅빈 배와 같이 지치고 허무하고, 낙심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텅빈 배의 인생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된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누구나 텅빈 배의 상황에 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텅빈 배의 인생에서 기쁨이 풍성하고 삶의 목표도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어떻게 텅빈 배의 인생이 풍성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라

베드로는 밤새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텅 빈 배 옆에서 그물을 찢고 있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눈 앞에 믿기 어려운 기적같은 일이 펼쳐진 것이다. 예수님은 텅빈 배의 인생을 찾아오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된 병자를 찾아가 고쳐주셨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사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보게 하셨다. 우리의 삶이 텅 비어있다면,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신앙생활에 체험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만 체험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면 안된다. 1) 체험신앙은 신앙이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한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2) 더 큰 경험과 환경 앞에 흔들릴 수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병도 낮고 기쁨이 있다. 체험만을 의지하다가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신앙의 중심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채울 고기를 잡는 기적의 체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셋째, 사명을 이루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자책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후회로 그는 고통 중에 살고 있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그리고 죄책감, 정죄감에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람 낚는 어부로 사는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대하는 3가지 태도가 있다. 1) 율법적, 법적으로 일하는 태도.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명으로 일하는 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사실하고 싶지 않은데,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명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태도가 있다. 3)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는 태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화되고 평생을 복음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로 (누가복음 5:1-11)

1. 마음으로 만나기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경배와 찬양 (Worship)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예요
사랑한다 아들이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하노라

3. 말씀 나누기 (Word): 눅5:1-11 말씀을 읽고 셸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 1)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세요.
- 2)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3) 체험적인 신앙의 좋은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세요.
- 4)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삶에 어떠한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생각해보고, 나눠보세요.
- 5) 이번 주 설교를 듣고,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4.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Work of Prayer)

1) 참석한 셸원들의 기도 제목 나누기

2)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 락다운 기간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 담임목사님과 셸리더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 청년들이 만날 수는 없어도, 자주 연락하며 영적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게 하소서
- 청년부 부장님과 간사, 리더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 직장과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